

광고제작·출판·인쇄 전문기업 '홍진씨앤피(주)'

“아그파 CTP 1호기 도입 등 최신 설비 통해 고품질 인쇄 실현”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인쇄는 문화의 산모라고 한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인쇄는 내수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인쇄수출진흥센터를 설립해 인쇄사 수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지에서는 문화의 한 축을 만들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필동에 위치한 홍진씨앤피(주)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 홍진씨앤피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쇼퍼백 2. 한국철도건설백년사 등 다양한 사서를 제작했다. 3. 서울인회, PC사랑, 전기안전공사 등 5개 월간지를 작업하고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만든 '가족밥상' 책자. 친환경용지와 콩기름인쇄로 제작한 이 책자는 100만권이 인쇄돼 전국 초교에 배부됐다.

2000년 7월 설립된 홍진씨앤피(주)(대표이사 최인규)는 광고제작·출판·인쇄전문기업으로 5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성과 최첨단 설비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인규 대표는 홍진씨앤피(주)의 전신인 대원문화사를 1961년 설립한 이후 총무로의 터줏대감이 됐다. 1968년 세진문화사, 1973년 세진상사, 1982년 11월 홍진문화인쇄사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0년 7월 (주)홍진인쇄로 법인전환했다. 최인규 대표는 “1960년대에 인쇄사를 설립한 이후 50여년 동안 인쇄의 한길만 달려왔다. 원로 인쇄인으로 활동한 김직승 인쇄연합회 회장도 나와 동년배다. 이렇게 총무로에서 오랜시간 동안 인쇄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1991년 3월 도서출판 홍진을 창업하고, 1993년에는 미쓰비시 4색기를 도입해 본격적인 인쇄사로 발돋움했다. CTP를 도입한 인쇄사가 거의 없던 2002년 고품질 인쇄를 위해 아그파 CTP 1호기 갈릴레오를 도입했다. 최인규 사장은 “초창기 인쇄를 할 때부터 나름대로 인쇄품질에 대한 고집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CTP가 활성화되기 전인 2002년에 CTP를 도입했다. 아그파 갈릴레오가 초창기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 첫번째로 도입한 것이다. 고객의 요구가 아닌 순수한 나의 결정이었다. 이전의 필름출력의 경우 망점재현이 거칠어 인쇄품질도 낮았다. 그런데 CTP로 출력하면 200선으로 이미지 손상없이 인쇄할 수 있다. CTP 도입을 통해 품질향상과 빠른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최고의 시설과 최신의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2005년 미쓰비시 5색기, 2006년 하이텔베그 4색기, 2009년 하이텔베그 5색기를 도입했다. 2010년에는 노후화된 CTP를 아그파 아발론으로 교체하고, 후지제록스 도큐컬러 5065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해 오프셋인쇄와 디지털인쇄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프리즘 UV CTP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한 장의 인쇄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홍진씨앤피는 선진 인쇄기술의 끊임없는 습득과 도전으로 어떠한 인쇄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품하고 있다. 최고를 지향하고, 최선을 다하는 홍진씨앤피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사진 촬영·기획부터 납품까지 토털 서비스

홍진씨앤피는 광고사진 촬영, 신문 잡지광고 제작, CI·BI 제작 등을 비롯해 기획, 편집, 교정, 출력, 인쇄 후가공, 납품에 이르기까지 토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광고사진 촬영의 경우 국내 우수 브랜드인 카스, 프리마, LG전자 캠코더, 하이트 프라임맥주, 동서식품 맥심 등의 광고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했으며, 늑대와여우컴퓨터, 현주컴퓨터, 한국통신, 두산위브, 금호타이어, 캐논카메라, 웅진쿠크, 우림건설, 고려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의 신문·잡지광고를 제작해 납품했을 정도로 광고·기획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5. 50년 동안 끊임없이 각종 도서를 발행했다. 6. 홍진씨앤피에서 촬영한 상업사진. 7. 홍진씨앤피에서 작업한 잡지광고





8-9. 흥진씨앤피에 설치된 하이델 4색기와 하이델 5색기 10-11. 아그파 이발론 CTP와 디지털인쇄기 제록스 도큐컬러 5065 12. 흥진씨앤피에서는 사진촬영 등 모든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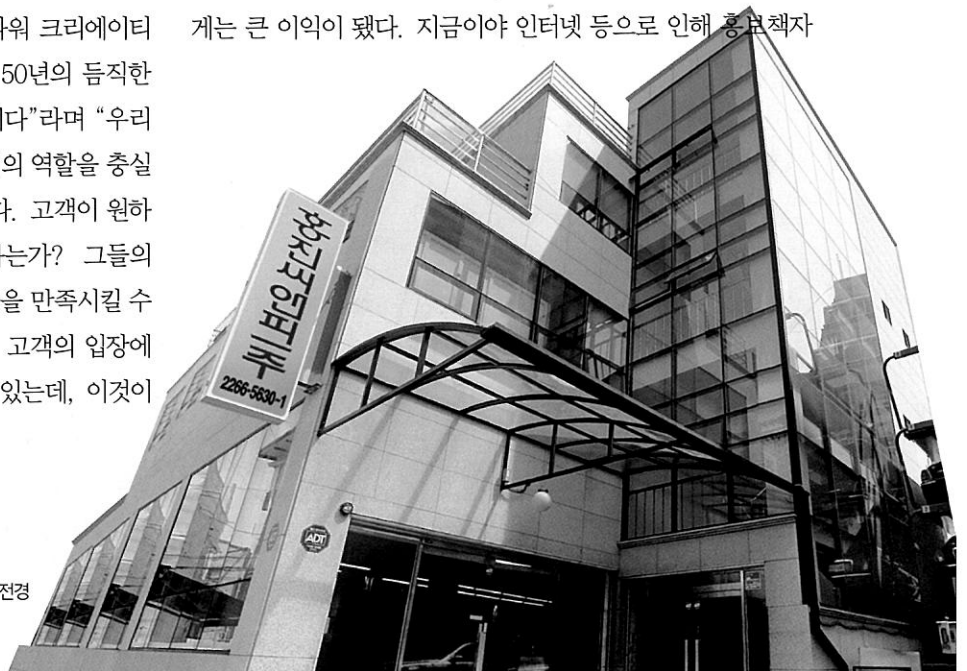
출판물로는 한국철도건설 100년사, 한국철도사진 108년사, 서울지하철건설30년사, 청원50년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50년사, 홍익부속중학교 30년사, 세검정성당 40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사를 기획 제작하고 있다. 또한 동원대학, 여주대학, 극동대학 등 전문대학의 입시 브로슈어를 비롯해 옥시크린, 금연초콜릿, 이지책 등의 패키지 인쇄도 하고 있다. 잡지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잡지를 오랜 시간동안 작업했으며, 현재 서울의회, PC사랑, 전기안전공사, DCM 등 5개의 월간지를 작업하고 있다.

최인규 사장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입각한 전략적 광고기획에서 정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는 파워 크리에이티브, 업계 선두 CTP 및 UV인쇄 시스템구축, 50년의 든직한 노하우와 최첨단 설비가 흥진씨앤피의 장점이다”라며 “우리는 고객의 수익창출과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불만스러워 하는가?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고민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회사의 성장비결이다”고 밝혔다.

대학전문인쇄사로 성장해 최근 미국에 인쇄물 수출

흥진씨앤피는 1983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1998년은 나라가 IMF광풍에 힘들어하던 시기에도 큰 어려움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교의 인쇄물을 작업했기 때문이다. IMF 당시에 7개 대학의 책자, 리플릿을 작업했다. 1998년에는 미쓰비시 대국전 4색기를 리스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최인규 사장은 “당시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지방대학들이 학생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경쟁적으로 홍보책자를 발행했는데, 인쇄부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 회사에게는 큰 이익이 됐다. 지금이야 인터넷 등으로 인해 홍보책자

흥진씨앤피 전경



를 거의 만들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쇄물량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쇄기 1대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쇄사에서 리스로 인쇄기를 도입하는데, 우리 회사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미쓰비시 관계자들도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농림수산물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만든 ‘가족밥상’ 책자를 친환경용지와 콩기름인쇄로 1백만권을 제작해 납품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미국에 인쇄물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중복장애인 시설인 여주 라파엘의 집 운영위원회 회장 활동

1941년생 뱀띠인 최인규 사장은 올해 72살을 맞았다. 인쇄업에 종사한 지도 50년이 지난 요즘 여주에 전원주택을 짓고 낚시도 하며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필동에 위치한 홍진씨앤피로 출근해 회사를 챙기고, 목요일부터는 여주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최 사장은 여주 별장 인근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홍진씨앤피(주) 연혁

1961년 10월	대원문화사 설립
1968년 04월	세진문화사로 상호변경
1973년 09월	세진상사로 상호변경
1982년 11월	홍진문화인쇄사로 상호변경
1991년 03월	도서출판 홍진 설립
2000년 07월	주식회사 홍진인쇄로 법인전환
2002년 04월	아그파 갈릴레오 CTP 도입
2004년 12월	홍진씨앤피(주)로 법인명 변경
2005년 05월	미쓰비시 5색기 도입
2006년 03월	하이델베르크 4색기 도입
2009년 04월	하이델베르크 5색기 도입
2010년 01월	아그파 아발론 CTP 도입
2010년 02월	후지제록스 도큐컬러 5065 디지털인쇄기 도입
2012년 04월	프리즘 CTP 도입

미니인터뷰



홍진씨앤피(주) 최인규 대표이사

“ 50년 인쇄인생 열심히 살았다 ”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0년 동안 사업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많았습니다. 좋았던 일을 하나 꼽으라면 1993년 미쓰비시 T3절 4색 인쇄기를 도입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1도나 2도 인쇄기가 대부분이어서 4도 인쇄를 하려면 2번에서 4번까지 인쇄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4색기는 한 번에 컬러인쇄가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기하고 고맙던지, 인쇄기 돌아가는 것을 내내 쳐다보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무실에 성모상 등 가톨릭관련 물건들이 많은데, 가톨릭 신자이신가요?

가족 모두가 교우인데, 딸 셋 모두 명동성당에서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집근처에 있는 세검정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인쇄업을 하고 있으니까 성당에서 인쇄가 필요할 때면 원가로 인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검정성당 40년사나 명동성당 등 각종 성당의 사목협의회 수첩 등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자를 가톨릭신자들이 보고, 인쇄를 문의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톨릭신자인 몇몇 지방대학 이사장께서 우리 회사로 전화해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던 것인데 오히려 배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쇄업에 종사한지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후임도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고회를 넘어 이제는 회사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술하에 1남 3녀를 두었지만 아들은 인쇄에 뜻이 없고, 딸들은 모두 결혼해 상해, LA, 워싱턴 DC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30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생질인 이인수 이사가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인수 이사가 제가 없어도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동국대언론정보대학원 인쇄화상을 전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한국인쇄학회 신임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 나갈텐데, 두 가지 모두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